

#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국민정체성에 관한 연구 -Heater의 이론을 적용하여-

전병주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 A Study on National Identity of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y -An Application of Heater's Theory-

Byeong-Joo Jeon

Dep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청소년 212명을 대상으로 Heater의 이론을 적용하여 그들의 차별경험과 문화변용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였고, 이것이 국민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차별경험을 측정한 결과 2.63(SD=.72)으로 나타나 보통수준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들의 문화변용스트레스는 2.48(SD=.65)로 나타나 보통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국민정체성 수준은 2.16(SD=.57)로 조사되어 보통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수준, 동거부모 형태, 모 한국어능력에 따라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차별경험( $\beta = -.305$ ), 동거부모 형태( $\beta = .286$ ), 문화변용스트레스( $\beta = -.225$ ), 학업수준( $\beta = .186$ ), 모 한국어 능력( $\beta = .173$ ) 등의 순서로 국민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국민정체성을 향상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다문화가족 청소년, 차별경험, 문화변용스트레스, 국민정체성, 사회통합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212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y to measure the level of their discrimination experience and acculturation stress by comparing with social integration analysis frame of D. Heater and examined how it affects them to national identity. Followings ar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First, after measuring the discrimination experience level of those surveyed, their average was a bit higher than the normal level, showing 2.63(SD=.72), and their acculturation stress was 2.48(SD=.65) which is average. Second, their level of national identity showed 2.16(SD=.57), which was lower than the normal level, and there was statistically a meaningful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depending on their academic level, parents' marital status, mother's Korean ability. Third, the factors that affected in national identity were in the order of their discrimination experience( $\beta = -.305$ ), parents' marital status( $\beta = .286$ ), acculturation stress( $\beta = -.225$ ), academic level( $\beta = .186$ ), mother's Korean ability( $\beta = .173$ ). Based on these results, several ways are suggested to improve national identity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y

**Key Words** :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discrimination experience, acculturation stress, national identity, social integration

Received 3 February 2014, Revised 26 February 2014

Accepted 20 April 2014

Corresponding Author: Byeong-Joo Je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Email: okjbj@cbnu.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정으로 인해 2012년부터는 혼인귀화자 외에 인지·귀화 등의 사유로 국적을 취득한 자도 다문화가족에 포함되었다<sup>1)</sup>. 이 개정된 법률에 의해, 2013년 말 기준으로 다문화가족은 75만명에 이른다. 이 중에서 결혼 이민자 및 인지·귀화자가 28만명이며, 그 배우자 28만명, 자녀 19만명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3년 기준으로 외국인과의 혼인은 전체 혼인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2000년도와 비교하여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sup>1)</sup>. 이러한 결과로 최근 한국사회에서 나타난 민족적·문화적 다양성의 증가는 안정적인 사회를 구현하고 통합된 사회를 도모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다문화가족의 증가에 따라 정부는 2014년 예산에서 지난해보다 3.8% 증가한 652억원을 배정하여 그들의 자녀 양육과 조속한 한국 정착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장기적 시각이 아닌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일시적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절적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사회통합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형식적이고 일회적 지원에 그치고 있어 다문화가족이 느끼는 사회적 배제와 차별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가족들은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느끼는 소속감’ 내지는 ‘국가 또는 국민과 연관하여 갖고 있는 신념과 감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국민정체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sup>2)</sup>. 최근에 국민정체성의 핵심은 민족(종족-혈통)보다는 시민(법-정치-제도)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은 종족과 혈통을 더 중시하고 있어서 다문화가족을 국민의 일원으로 수용하기에 여러 한계점이 있다. Heater(2004)[3]는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사회에서 공동체 상호간에 신뢰를 형성하고 소수집단에게 국민정체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음 요인을 강조하였다. 첫째로,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무시하는 풍토로 인해 그들을 2류 시민의 처지에 놓이게 해서는 안 되며, 둘째로, 지배적인 다수집단에 의한 문화적 동조가 강요되어 소수집단에게 발생하는 문화적 스트레스를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지혜로운 접근에 의해 국가 내 다양성의 인정과 상호존중을 통하여 국가의 충성과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하였다.

한국 국민의 인구사회학적 환경이 다양해지면서 다문화가족의 청소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다문화가족의 청소년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5년과 비교하여 약 6배 증가한 4만여 명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에 있다. 이 청소년들이 자신의 국민정체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미래 한국 사회의 사회적 통합을 가능할 수 있는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다.

Heater(2004)[3]가 강조한 요인을 토대로 국민정체성을 볼 때,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차별과 편견 등의 부정적인 상황에 여전히 노출되어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되거나 비행이나 범죄와 같은 일탈행동에 저지르기도 한다<sup>4)</sup>. 때로는 주변 관계에서 고립되는 상황을 벗어나고 사회적 수용을 얻기 위하여 친구들을 과도하게 따르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sup>5)</sup>. 청소년들의 생활이 학교에 한정되는 상황에서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차별은 성인보다 또래에 의한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sup>6)</sup> 이에 대한 연구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상이한 두 문화의 접촉이 더욱 증가함으로써 해당 문화가 변화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변용(acculturation)을 경험하게 된다<sup>7)</sup>. 이러한 현상은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며, 사회의 소수자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들 역시 기존 문화로의 동화를 강요받게 된다<sup>8)</sup><sup>9)</sup>.

이와 같이 다문화가족의 청소년들은 외모적 차이와

1)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법률 제10534호, 2011. 10. 5. 시행)으로 동법의 제2조(정의)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며, 문화변용에 기인한 어려움까지 경험하고 있다[10][11]. 이러한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차별과 문화변용스트레스는 그들에게 사회에 대한 불신과 부적응 행동으로 이어져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한국 국민임을 부정하거나 국민정체성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결국,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차별 경험을 방지하고, 이질적인 문화에 대해 좀 더 적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지원과 함께 그를 위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경험하는 차별과 문화변용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이러한 문제가 지속됨으로써 국민정체성에도 문제를 초래하여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차별경험과 문화변용스트레스가 국민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이 한국 국민임을 대한 자부심을 갖고 미래 국가의 성장 동력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인가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국민정체성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차별경험과 문화변용스트레스는 국민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충남·북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이다. 본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청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교 등을 방문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질문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하고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2013년 6월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문항을 다소 수정하여 2013년 8~9월에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255부를 배

포하여 226부가 회수(회수율: 88.6%)되었으며, 그 중에서 응답이 불성실한 것을 제외한 212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 2.2 연구도구

### 2.2.1 차별경험

본 연구에서의 차별경험은 조사대상자가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편견과 차별을 받은 경험을 의미한다. 조사대상자의 차별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진행한 최운선(2012)[4]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Way(1997)[12]가 개발한 척도를 번안하고 수정한 것이다. 또한, 이 척도는 '민족·문화적 배경에 의해 친구들로부터 불공평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국제결혼가정 출신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등의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문항에 대하여 조사대상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 응답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조사대상자들이 경험한 차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최운선(2012)[4]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94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76으로 나타났다.

### 2.2.2 문화변용스트레스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문화변용으로 인해 겪게 되는 스트레스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Hovey & King(1996)[13]이 개발한 SAFE(Social, Attitudinal, Familial and Environmental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Adolescents) 척도에 대해 이상균 외(2012)[9]가 번안하고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문화적 환경 차이로 인해 방황한 적이 있다' 등의 4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하위요인의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조사대상자들의 문화변용스트레스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상균 외(2012)[9]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84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85로 나타났다.

### 2.2.3 국민정체성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국민정체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박정균 외(2011)[14]의 척도를 수정하여 이용하

였다. 이 척도는 국민으로서 나라에 대한 애착, 자긍심, 헌신도 등의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하위요인의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조사대상자의 국민정체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박정균 외(2011)[14]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93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81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내적 일관성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2.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PASW Statistics 18.0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차별경험 및 문화변용스트레스 및 국민정체성 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각 집단별 국민정체성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ANOVA검증을 하였다. 그리고 관련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국민정체성에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자 212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들은 초등학교 5~6학년 115명(54.2%), 중학교 1~3학년 97명(45.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은 여학생 124명(58.5%), 남학생 88명(41.5%)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 거주지역은 군 지역이 127명(60.5%), 시 지역이 83명(39.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기말고사에서의 학급 평균점수와 비교하여 자신의 점수가 더 높았던 학생은 56명(27.1%)이었고, 점수가 낮았던 학생은 151명(72.9%)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이 인식하는 경제수준은 ‘어렵다’라고 응답한 집단이 81명(39.3%)으로 가장 많았고, ‘매우 어렵다’ 58명(28.2%), ‘대체로 잘 산다’가 40명(19.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형태를 조사해 본 결과 부모가 ‘함께 살고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114명(55.1%)이었고, 두 분이 이혼 내지 별거한 경우가 93명

(44.9%)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출신국은 중국 한국계가 3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베트남 37명(17.9%)이었으며, 중국과 일본이 각각 32명(15.5%) 등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69명(33.2%)로 가장 많았고, ‘대체로 잘 한다’ 42명(20.2%), ‘대체로 못 한다’와 ‘대체로 잘 한다’가 각각 33명(15.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ategories		N	%
Grade (n=212)	elementary school	115	54.2
	middle school	97	45.8
Gender (n=212)	male	88	41.5
	female	124	58.5
Place of Residence(n=210)	country	127	60.5
	city	83	39.5
Academic level(n=207)	less than average	151	72.9
	more than average	56	27.1
Economic status (n=206)	very bad	58	28.2
	bad	81	39.3
	good	40	19.4
	very good	27	13.1
Marital status(n=207)	single-parent	93	44.9
	two-parent	114	55.1
Mother's country of origin (n=207)	Japan	32	15.5
	China(Korean)	38	18.4
	China	32	15.5
	Vietnam	37	17.9
	Philippines	30	14.5
	Others	38	18.4
Korean level of mother (n=208)	very low	31	14.9
	low	33	15.9
	normal	69	33.2
	high	42	20.2
	very high	33	15.9

### 3.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차별 경험 및 문화변용스트레스, 국민정체성 수준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조사대상자들의 차별경험 수준은 2.63(SD=.72)으로 나타나 보통수준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문화변용스트레스 수준은 2.48(SD=.65)로 나타나 거의 보통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들의 국민정체성 수준은 2.16(SD=.57)로 나타나 보통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도 가장 낮아서 조사대상자들의 의견이 비교적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Categories	M	SD	Min	Max
Discrimination	2.63	.72	1.00	4.00
Acculturation stress	2.48	.65	1.25	4.00
National identity	2.16	.57	1.00	3.83

국민정체성 수준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F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학업수준(p<.01), 동거부모 형태(p<.001), 모 한국어 능력(p<.01)에 따라 국민정체성 수준은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국민정체성에 대하여 각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지난 기말고사에서 학업평균 점수보다 높았다고 응답한 경우의 국민정체성은 2.41(SD=.68)이었고, 낮은 집단에서 2.07(SD=.51)로 나타났다.

〈Table 3〉 Differen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ategories		M	SD	t/F
Gender	male	2.17	.55	.345
	female	2.15	.59	
Grade	elementary school	2.13	.60	-.709
	middle school	2.19	.53	
place of Residence	country	2.13	.54	-1.058
	city	2.21	.61	
Academic level	less than average	2.07	.51	-3.305**
	more than average	2.41	.68	
Economic status	very bad	2.22	.58	1.168
	bad	2.08	.52	
	good	2.26	.69	
	very good	2.12	.56	
Marital status	single-parent	1.97	.52	-4.637***
	two-parent	2.33	.57	
Mother's country of origin	Japan	2.19	.64	.042
	China(Korean)	2.18	.54	
	China	2.14	.49	
	Vietnam	2.15	.55	
	Philippines	2.15	.64	
	Others	2.17	.58	
Korean level of mother	very low(a)	1.84	.37	4.905**
	low(ab)	1.96	.52	
	normal(b)	2.24	.52	
	high(b)	2.25	.61	
	very high(b)	2.31	.63	

\*\*p<.01, \*\*\*p<.001

또한 양부모가 함께 생활하는 조사대상자 집단의 국

민정체성은 2.33(SD=.57)이었고, 부모가 이혼 내지 별거하는 경우에는 1.97(SD=.52)이었다.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에 따른 국민정체성은 한국어를 '매우 잘 한다'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2.31(SD=.6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체로 잘 한다'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2.25(SD=.61)이었다.

### 3.3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조사대상자들의 차별경험, 문화변용스트레스가 국민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학업수준(r=.254, p<.01), 동거부모 형태(r=.306, p<.01), 모 한국어 능력(r=.270, p<.01)은 국민정체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자의 차별경험(r=-.390, p<.01)과 문화변용스트레스(r=-.423, p<.01)는 국민정체성과 부적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업수준이 높을수록, 양부모가 함께 거주하고 있을 때,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이 우수할수록, 차별경험 및 문화변용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할수록 국민정체성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 3.4 국민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차별경험과 문화변용스트레스가 국민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우선 모델 I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성별, 학년, 거주지역, 학업수준, 경제수준, 동거부모 형태, 모 출신국, 모 한국어능력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변수들이 국민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모델 II에서는 모델 I에 조사대상자들의 차별경험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델 III에서는 모델 II에 문화변용스트레스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국민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각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 발생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을 확인한 결과 모두 2.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각 변수들간에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4) Correction between Variables

Categories	Gender	Grade	Place of residence	Academic level	Economic status	Marital status	Mother's country of origin	Korean level of mother	Discrimination experience	Acculturation stress
National Identity	-.024	.049	.073	.254**	-.014	.306**	.010	.270**	-.390**	-.423**

dummy variable: Gender(female-1), Grade(middle school-1), Residence area(city-1), Academic level(more than average-1), Marital status(two parent-1)  
 p<.05, \*\*p<.01

(Table 5) Influencing Factors Associated with National Identity

Categories	Model I			Model II			Model III		
	β	t	VIF	β	t	VIF	β	t	VIF
Gender	.049	.699	1.133	.073	1.133	1.138	.045	.725	1.155
Grade	.068	1.023	1.052	.056	.908	1.053	.040	.669	1.148
Place of residence	.091	1.328	1.114	.074	1.166	1.117	.058	.946	1.059
Academic level	.224	3.347**	1.054	.217	3.514**	1.054	.186	3.074**	1.123
Economic status	-.020	-.299	1.056	.002	.039	1.061	.003	.053	1.076
Marital status	.317	4.767***	1.038	.328	5.360***	1.039	.286	4.723***	1.061
Mother's country of origin	.032	.484	1.052	.057	.916	1.057	.055	.915	1.081
Korean level of mother	.229	3.372**	1.081	.202	3.217**	1.087	.173	2.829**	1.057
Discrimination experience				-.352	-5.764***	1.032	-.305	-5.038***	1.082
Acculturation stress							-.225	-3.589***	1.158
R <sup>2</sup>	.226			.346			.390		
Adj. R <sup>2</sup>	.192			.314			.356		
ΔR <sup>2</sup>				.120***			.044***		
F	6.643***			10.643***			11.495***		

dummy variable: Gender(female-1), Grade(middle school-1), Residence area(city-1), Academic level(more than average-1), Marital status(two parent-1)  
 p<.05, \*\*p<.01, \*\*\*p<.001

먼저 모델 I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학업수준(p<.01), 동거부모 형태(p<.001), 모 한국어능력(p<.01) 등이 국민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모델의 설명력은 19.2%로 나타났다. 모델 II에서는 조사대상자의 학업수준(p<.01), 동거부모 형태 (p<.001), 모 한국어능력(p<.01), 차별경험(p<.001) 등이 국민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모델의 설명력은 모델 I에서 12.0% 유의미하게 증가한 31.4%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모델 III에서는 조사대상자의 학업수준(p<.01), 동거부모 형태(p<.05), 모 한국어능력(p<.01), 차별경험(p<.001), 문화변용스트레스(p<.001) 등이 국민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들의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차별경험(β =-.305), 동거부모 형태(β=.286), 문화변용스트레스(β =-.225), 학업능력(β=.186), 모 한국어능력(β=.173) 순서로 국민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

델의 설명력은 모델 II에 비해 4.4% 유의미하게 증가한 35.6%로 나타났다(F=11.495, p<.001).

#### 4. 결론

본 연구는 충남·북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청소년 212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차별경험과 문화변용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고, 이것이 국민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차별경험을 조사한 결과 2.63 (SD=.72)로 나타나 보통수준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문화변용스트레스 수준은 2.48(SD=.65)로 나타나 보통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차별경험은 김혜미 외(2011)[15]의 연구에서도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그들에 대한 학교와 지역사회

에서의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문화변용스트레스의 수준과 관련하여, 은선경(2010) [16]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이중문화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높게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선행 연구에서는 문화와 관련해 그들이 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서[7]-[9][17]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문화변용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결과는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조사대상자들의 국민정체성 수준은 2.16 (SD=.57)로 나타나 보통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학업수준 ( $p<.01$ ), 동거부모 형태( $p<.001$ ), 모 한국어능력( $p<.01$ ) 등에 따라 국민정체성 수준은 통계적으로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사대상자들의 국민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조사대상자의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차별 경험( $\beta=-.305$ ), 동거부모 형태( $\beta=.286$ ), 문화변용스트레스( $\beta=-.225$ ), 학업능력( $\beta=.186$ ), 모 한국어능력( $\beta=.173$ ) 순서로 국민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몇 가지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국민정체성에 있어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차별경험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비한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학교에서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보다 익숙한 콘텐츠를 이용하여 각 국가의 자연 및 문화 환경을 소개하는 등의 다문화교육과정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다문화를 이해하고, 다문화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교육은 문화적으로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경험하는 고통과 차별을 감소시키고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불평등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18]. 또한,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이 다양한 집단과의 교류 및 상호작용을 통해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의 또래간 상호존중과 신뢰를 구축하여 동질감과 유대감의 증진을 기대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사회적 통합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형태 유지 및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부모가 이혼 내지 별거한 가정의 자녀들은 국민정체성 수준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혼인 유지 여부가 국민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두 번째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다문화가족의 해체를 방지하고, 가족건강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가족의 구조 및 관계적 특성에서 안정적인 가족형태는 청소년의 안정적인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19] 각 지역의 다문화가족센터에서의 그들을 위한 정기적인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그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그들에게 지원되는 영역 및 그 정도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정과 함께 다문화가족의 청소년이 미래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단순한 사회적 재분배 차원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7].

셋째,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문화변용스트레스가 국민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질적 문화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문화뿐만 아니라 어머니 나라의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욱이 우리 사회에서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문화변용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임을 인식해야 한다[9].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제는 특정 요인을 해결함으로써 모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들에게 우리 문화에 대한 일방적인 동화와 이해 요구가 아닌 서로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요구된다[7]. 다만, 본 연구에서는 다행스럽게도 문화변용스트레스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정책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다문화가족의 청소년들에게 이질적인 문화에 의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조사대상자의 모 한국어능력이 국민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가족과의 대화 증진 및 사회적 교류의 확대를 통해서 모의 한국어능력을 향상하여야 한다. 모의 한국어능력은 자녀의 학업수준뿐만 아니라 가정의 융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인식

해야 한다[20].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의 모국어 구사 등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일원으로 더욱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국민정체성 수준은 단일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관련 요인들이 상호 연관된 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역시 미래 국가 발전의 주체로서 그들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7], 그들 스스로 국민임을 인식하고 주류사회와의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차별경험과 문화변용 스트레스, 국민정체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몇 가지 연구결과 및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eater의 이론을 적용하여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이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경험하는 차별과 문화변용스트레스를 변수로 선정하여 그 수준을 측정하고, 이것이 국민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결과에 따른 국민정체성의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의의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청소년들의 학업 포기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그들을 포함한 연구가 진행되어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방법은 후속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 REFERENCES

[1]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Current Status of Multi-cultural family. 2013.  
 [2] R. Burubaker, Citizenship and Nationhood in France and German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3] D. Heater, A History of Education for Citizenship. Routledge, 2004.  
 [4] W. S. Choi, Personal Characteristics, Ethnic Identity,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Self-Esteem, and Problem Behavior of Korean-Japanese

Multicultural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7, No. 2, pp. 49-71, 2012.  
 [5] J. T. Gibbs, Identity and marginality,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 57, pp. 265-278, 1987.  
 [6] M. Green, N. Way & K. Pahl, Trajectories of perceived adult and peer discrimination among Black, Latino and Asian American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42, No. 2, pp. 218-238, 2006.  
 [7] B. J. Jeon,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and Acculturation Stress on School Adaptation of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y.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0, No. 11, pp. 29-38, 2012.  
 [8] Y. H. Moon & E. M. An, The Influence of Bi-cultural Attributes of Children From Female Marriage Immigrants on School Adjustment-Focused on northern Cholla province Rural area.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Vol. 33, pp. 47-68, 2010.  
 [9] S. G. Lee, H. S., Park, Y. H. Rho & C. W. Rhee, The Mediated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and Cultural Capital on School Adaptation for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Focused on the Mediation Effects of Positive Self-concep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Vol. 38, pp. 235-264, 2012.  
 [10] I. S. Na, Affecting Factors on the Stress among Foreign immigrant Women by marriage in Korea. Journal of Nonprofit research, Vol. 7, No. 1, pp. 97-136, 2008.  
 [11] A. J. Romero, S. C. Carvajal, F. Valee & M. Orduna, Adolescent bicultural stress and its impact on mental well-being among Latinos, Asian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35, No. 4, pp. 519-534, 2007.  
 [12] N. Way, Adult and Peer Discrimination Measur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136, pp. 139-158, 1997.



- [13] J. D. Hovey & C. A. King,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immigrant and second-generation Latino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Vol. 35, No. 9, pp. 1183-1192, 1996.
- [14] J. G. Park, S. Y. Hwang & J. B. Kim, Determinants of Ethnic Koreans Living in China. *Journal of Northeast Asian*, Vol. 26, No. 1, pp. 149-174, 2011.
- [15] H. M. Kim, S. J. Won & S. H. Choi,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 42, No. 1, pp. 117-149, 2011.
- [16] S. K. Un,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School Adjustment of Bicultural Children: Focused on Family Function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Vol. 33, pp. 37-74, 2010.
- [17] S. J. Jeon & H. M. Yoon, Effects of Neglect, Acculturative Stress, and Self-Esteem on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y.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Vol. 24, pp. 153-179, 2013.
- [18] H. S. Kim, A Study on the Bases and the Meanings of Social Integration in the Multicultural Age.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Vol. 41, No. 4, pp. 31-49, 2009.
- [19] H. R. Kim & S. H. Choi, The Effects of Family Strengths and school-related factors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Vol. 30, pp. 159-182, 2009.
- [20] C. J. Yu, G. T. Kim & S. H. Lim, The Study on welfare service of multicultural families youth.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0 No. 5, pp.19-26, 2012.

**전 병 주(Jeon, Byeong Joo)**



· 2002년 8월 : 동국대학교 법학과(법학사)  
· 2009년 8월 : 충북대학교 법학과(법학석사)  
· 2014년 2월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문학박사)  
· 관심분야 : 사회보장, 노인·주거복지  
· E-Mail : okbj@cbnu.ac.kr